

결정적인 순간에 강한 면모 보인 '우승 캡틴'

'V12' KIA타이거즈 2024년 결산 <9> 외야수 나성범

"안방에서 우승을 하는 게 가장 좋죠. 주장으로서 광주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동료 선수들에게도 고맙습니다."

KIA타이거즈이적 후 처음으로 유니폼에 알파벳 C를 새긴 '초보 주장'은 '우승 캡틴'이 됐다. 올 시즌 나성범의 평균 기록을 봤을 때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활약이었지만 승부처에서는 뛰어난 활약을 펼쳐 팀 승리에 기여했다.

나성범은 올해 정규시즌 102경기를 소화하며 타율 0.291(374타수 109안타), 21홈런, 80타점, 51득점을 기록했다. 장타율은 0.511, 출루율은 0.357이었다. KIA 이적 후 첫 해인 2022시즌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2023시즌과 2024시즌 연속으로 풀타임을 소화하는데 실패했다.

KBO리그에서 대표적인 '금강불괴(아주 견고해서 좀처럼 깨지지 아니하는 몸)'로 꼽히던 나성범에게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지난해 종아리와 허벅지 부상으로 58경기 출장에 그친 뒤 올 시즌 김선빈에게 주장직까지 물려받으며 설욕을 노렸으나 다시 허벅지 부상이 도진 것이 치명적이었다.

풀타임 소화에는 실패했으나 나성범의 존재감은 확실했다. 올해 정규시즌을 앞두고 시범경기 도중 우측 햄스트링 부분 손상으로 이탈했으나 약 1개월 만인 4월 말 전력에 복귀했고, 승부처에서는 확실한 활약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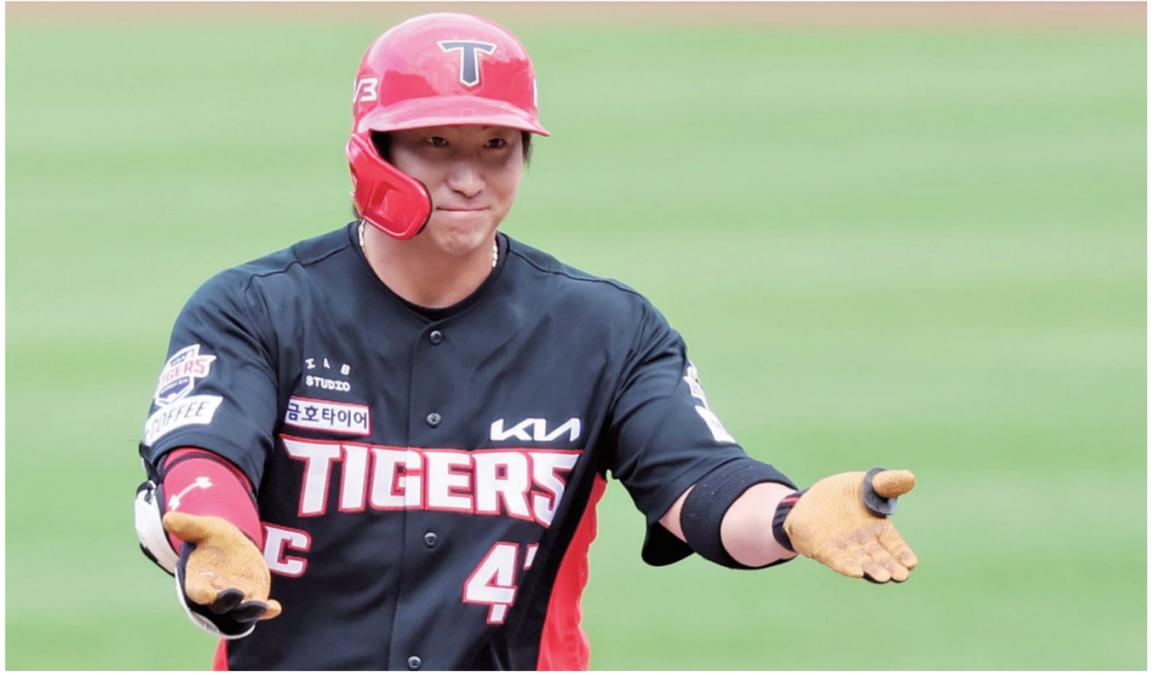
여름 승부처서 3경기 연속 홈런 한국시리즈 2~4차전 멀티히트 최형우 통증에 4번서 완벽 활약 "안방서 트로피 들 수 있어 영광"

특히 정규시즌 우승의 분수령이었던 8월 중순에는 나성범의 활약이 최고조에 올랐다. 2위 LG트윈스가 4경기 차로 추격된 상황에서 원정 3연전을 떠난 나성범은 1차전 역전 결승 투런포, 2차전 동점 솔로포를 날리며 맹타를 휘둘렀다.

LG와 3연전에 앞선 키움과 3연전 3차전에서도 스리런포를 날렸던 나성범은 3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했고, KIA는 시리즈 스윕에 성공해 7경기 차로 벌리며 LG를 3위로 끌어내렸다.

가장 큰 무대인 한국시리즈에서도 나성범의 존재감은 빛났다. 1차전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던 나성범은 2차전에서는 4타수 2안타 1득점을 올리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또 7회초 수비에서는 선두 타자 르윈 디아즈의 안타에 정확한 2루 송구로 주루사를 유도하며 리드를 지켜냈다.

이어 3차전에서 4타수 2안타를 기록한 나성범은 4차전을 앞두고 최형우가 허리 통증으로 결장하며 5번 타자에서 4번 타자로 전진 배치됐고, 5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특히 0-0으로 맞선 1



KIA타이거즈 나성범이 지난달 26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4차전 3회초 무사 1·2루에서 안타를 때리며 만루 기회를 만든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회말 1사 2·3루에서 내야 땅볼로 진루타를 만들어내며 선취점을 올렸고, 이는 결승타로 연결됐다.

2차전부터 4차전까지 세 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생산하며 맹타를 휘두른 나성범은 최형우가 전력에 복귀한 5차전에서도 4번 타자에 기용되며 신뢰를 받았다.

3타수 1안타 1볼넷 1타점으로 멀티히트 행진을 이어가는 데는 실패했지만 0-3으로 뒤진 1회말 1사 1·3루에서 희생 플레이를 날리며 추격의 시발점 역할을 했

다. 주장이자 중심 타자로서 KIA 타선에 앞장선 나성범은 한국시리즈 5경기에서 타율 0.350(20타수 7안타 1볼넷), 2타점, 3득점의 성적을 냈다. 장타율은 0.350, 출루율은 0.364로 높지 않았지만 적재적소에 출루와 해결 능력을 선보이며 우승에 힘을 보탤다.

나성범은 3승 1패로 앞선 상황에서 한국시리즈 5차전을 앞두고 "안방에서 우승하는 게 가장 좋다"며 "광주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영광스러울 것 같고, 동료들에게도 정말 고마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차전까지 한국시리즈를 즐겨왔고, 모두 잘 준비한 만큼 오늘 우승을 확정 짓고 싶다"며 "가족들도 경기를 보러 오는데 그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는 다짐을 현실화했다. 우승 캡틴,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가장이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영암F1경주장서 내일 어울림 사이클 대회

장애인·비장애인 스포츠 화합

영암군은 16일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영암모터피아 어울림 사이클 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 조성 지원사업으로 열리며, 전남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전남도가 후원한다.

대회는 지체·지적·청각·시각 장애인, 비장애인 사이클인 등이 참가해 F1자동차경주장을 무대로 스피드의 한계를 넘나드는 경주를 펼친다. 장애인 종목은 개인도로 독주 16.845km와 휠체어 레이싱 16

km이고, 비장애인 종목은 개인도로 22.46km, 33.69km, 44.92km등으로 최단시간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영암군은 지역 우수 인프라인 F1자동차경주장을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회를 만들어 장애인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영암군의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 조성 지원사업은 오는 23일 '모터뮤직페스타', 23~24일 '전국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와 '듀애슬론대회', 12월8일 '영암F1 전국마라톤대회' 등으로 이어진다.

영암=한교진 기자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어울림한마당 '성료'

제3회 광산구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한마당 대회가 지난 13일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 체육관과 하남그린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지역 내 16개 장애인 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 5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광산구청장배 장애인파크골프대회 도입을 위한 이벤트 번외경기로 파크골프 종목 대회를 병행 개최했다. 입장식 퍼포먼스, 특별공연, 마술공연, 네일아트 등 부대행사 등도 진행됐다.

또 어려운 장애인시설 등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꽃화환 대신 쌀 기부 행사를 펼쳐 100여명이 쌀 나눔 기부행사에 동참했

다. 20개 이상 지역 기업인들이 내놓은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열렸다.

체육대회는 상생, 혁신, 소통, 화합 4개 팀으로 나눠 파도타기, 공굴리기 등 팀대항전과 홀라후프, 낙하산 펼치기, 릴레이 계주 등 기관 대항전, 휠체어 경기 등으로 진행됐다.

체육대회 종합 1위는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위는 혜화장애인주간보호센터, 3위는 소남숲사회적협동조합이 차지했다.

파크골프 단체전 1위는 백희자·박종현 선수, 2위는 전승룡·홍기환 선수, 3위는 김정중·이향욱 선수가 차지했다.

한규빈 기자

'6연패' 장소연 페퍼저축은행 감독 "팬들께 죄송"

현대건설에 0-3 셋아웃 패배 대체 외인 테일러 호흡이 과제

창단 후 네 시즌 만에 개막전 승리를 챙기며 새 시즌 기대감을 키웠던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6연패를 당하며 고개를 숙였다. 1라운드를 1승 5패, 승점 4점으로 마무리한 가운데 2라운드 첫 경기에서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에 셋아웃 패배를 안으며 최하위 추락 위기에 놓여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13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현대건설과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1차전에서 세트 스코어 0-3(18-25, 19-25, 14-25)으로 완패했다. 이날 패배로 6연패에 빠진 페퍼저축은행은 올 시즌 1승 6패(승점 4)에 그치며 5위에 머물렀다.

장소연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이날 경기 후 "경기가 너무 안돼서 팬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지 못하며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갔다. 서브 타겟이 정지윤이었는데 너무 잘 버텼고, 효과적인 서브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총평했다.

실제로 이날 정지윤의 리시브 효율은 44.00%에 달했다. 현대건설의 팀 리시브 효율도 44.44%로 높았던 반면 페퍼저축은행의 팀 리시브 효율은 31.88%에 그쳤다. 현대건설은 탄탄한 리시브로 편안하게 공격을 구사했고, 페퍼저축은행은 공



장소연(오른쪽)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감독이 지난 13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1차전에서 이원정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격의 시작점부터 흔들리며 테일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장 감독은 "이원정은 리시브가 안된 것도 있지만 패전이 많았다. 변화를 주기 위해 박사랑도 기용했다"며 "테일러는 아직까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본인이 가진 기량이 분명히 있지만 컨디션이 100%가 아닌 상태"라고 평가했다.

장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 염어름에게 올 시즌 처음으로 출전 기회를 줬다.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지난 시즌 9경기 출전에 그쳤던 염어름은 1년여 만에 복귀전을 치르며 페퍼저축은행의 높이에 가세했다.

그는 "염어름은 재활 기간이 길었고 실전 감각이 필요했다.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조

금씩 교체로라도 기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본인 몫은 충분히 해줬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실전 감각이 떨어진 데서 오는 미스가 일부 있었지만 앞으로 충분히 기량이 올라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17일 IBK기업은행 알토스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도전한다. 앞선 맞대결에서 시즌 첫 셋아웃 패배의 수모를 안겼던 강적이다.

장 감독은 "훈련을 하면서 호흡이 더 맞춰져야 하고 실전에 나왔을 때 결과물로 이어져야 선수들의 자신감이 생긴다"며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선수들과 미팅을 통해서 다짐도 할 것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완성도 역시 최대한 높여 보겠다"고 다짐했다. 한규빈 기자